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초등영어 단어 소리 분석: 음절, 강세, 자음을 중심으로

성민창 (경인교육대학교)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License,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Received: December 18, 2023

Revised: February 14, 2024

Accepted: February 21, 2024

Sung, Min-Chang

Professor, Gyeongin Nat'l Univ.

Tel: (031) 470-6335

mcsung@ginue.ac.kr

ABSTRACT

Sung, Min-Chang. 2024. Analysis of elementary English word sounds in the 2022 revised national curriculum: Focusing on syllables, stress, and consonants.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24, 109-126.

This paper examines the segmental and suprasegmental features of the 800 elementary English words in the 2022 revised national curriculum. The aim is to offer specific guidelines for elementary English education and to propose ideas for future curriculum revisions. The research involved transcribing the 800 headwords for elementary English into the International Phonetic Alphabets based on American English pronunciation and analyzing two suprasegmental features (syllable structure and stress) and two segmental features (onset and coda). Results show that the 800 elementary English words encompass a broad spectrum of sound paradigms, including various syllable structures, manners and points of articulation, and consonant clusters. However, there are limitations in the frequency distributions of certain suprasegmental and segmental features, which may affect young learners' acquisition of English word sound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paper discusses pedagogical implications for the revision of the basic vocabulary list and the development of elementary English lessons.

KEYWORDS

2022 revised national curriculum of English, basic vocabulary list, elementary English words, word sound, consonant

1. 서론

영어 학습자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영어 단어에 사용된 다양한 소리를 배우고, 그 지식을 활용하여 영어 의사소통 활동을 수행한다(Pennington and Richards 1986). 즉, 영어 단어 소리에 대한 지식이 영어 학습 초기부터 의사소통에서 매우 중요하다. 나아가 영어 학습 초기에 익힌 다양한 영어 소리 지식은 이후의 영어 학습 및 사용에서 반복적으로 활용되고 강화되며, 영어 사용 능력 발달에 장기적인 효과를 미친다(O'Brien 2004). 만약 초기 학습 단계에서 다양한 영어 소리 패턴을 익히지 못한다면, 영어 학습자들은 특정 소리와 관련된 표현을 이해하고 발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반대로 초기 학습 단계에서 다양한 영어 소리 패턴을 익힌 학습자는 자신의 소리 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단어를 쉽게 배우고 편하게 사용할 것이다.

영어 학습 초기에서 단어의 소리가 가지는 중요성은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22 개정 영어과 공통 교육과정(교육부 2022, p. 7)의 내용 체계는 초등학교 영어의 첫 번째 내용 요소로 “쉽고 간단한 단어, 어구, 문장의 소리, 철자, 강세, 리듬, 억양”을 제시하고 있다. 이 문구에서 “소리”는 자음과 모음 등 분절 요소를 지칭하고, “강세, 리듬, 억양”은 초분절 요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초등학교 영어 학습자가 단어의 분절 및 초분절 요소라는 주요 내용 요소를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기본 어휘 목록이 구성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초등학교 영어에서 단어 소리에 대한 강조는 성취기준에서도 발견되며, 그 예로 “[4영01-01] 알파벳과 쉽고 간단한 단어의 소리를 듣고 식별한다”와 “[6영01-02] 간단한 단어, 어구, 문장을 강세, 리듬, 억양에 맞게 소리 내어 읽는다” 등의 성취기준이 있다. 한편, 단어 소리에 대한 강조는 우리나라 초등학교 영어의 주요 특징으로, 중학교 영어에서는 연음이나 축약된 소리를 주요 내용으로 다룬다. 따라서 다양한 단어 소리를 익히는 것은 초등영어 학습의 중요한 과업이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 따르면 단어 소리 학습에 있어서 우리나라 초등영어가 여러 가지 한계를 보여 왔다. 우선 영어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어휘 목록에서 제한점이 확인되었는데, 단어 소리의 기본 단위인 음절 패턴이 다양하게 활용되지 않았고(윤여범, 김용구 2012) 철자와 소리 간의 규칙성을 설명하기 힘든 단어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양병선, 이미자 2017). 더불어 초등학교 영어 교과서에서 단어 소리 학습과 관련이 높은 파닉스 활동들이 교과서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였는데, 자음군(예: /fr/)을 다루지 않거나 5-6학년군에서는 파닉스 활동 자체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문미정, 정현성 2019, 최희경, 박선호 2020). 또한 우리나라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단어 소리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연구되었다(김광 2001, 김진석 2003, 한현숙 2001). 초등영어 학습자의 단어 소리 학습 과정을 진단하고 영어 학습자의 필요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초등영어 단어 소리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단어 소리 학습의 한계점과 시사점을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조망하고자,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초등학교 수준의 단어를 분석한다. 즉, 교육과정에 제시된 초등학교 수준의 단어들에 다양한 소리 패턴(예: 분절 및 초분절 요소)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는지 진단함으로써, 교과서 개발의 방향(예: 특정 소리에 해당하는 단어 추가 활용)과 추후 영어과 교육과정 개발의 근거 자료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음성 체계 전체에 대한 지식의 중요성(고경석 1998)에 근거하여, 초등영어 단어들에 초분절 요소인 음절과 강세 패턴을,

그리고 분절 요소인 초성 및 종성 자음(군)을 다양하고 반복적으로 활용하는지 분석한다.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 (1)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초등영어 단어는 초분절 요소(음절, 강세 등)에서 어떠한 분포 양상을 보이는가?
- (2) 초등영어 단어는 초성 자음에서 어떠한 분포 양상을 보이는가?
- (3) 초등영어 단어는 종성 자음에서 어떠한 분포 양상을 보이는가?

2. 초등 영어 단어 소리 학습

영어를 비롯한 다양한 자연어의 기본 소리 단위로 음절(syllable)이 있다. 음절은 크게 초성(onset), 중성(nucleus), 종성(coda) 등 3개의 요소로 구성된다. 언어마다 음절의 구성 요소에 허용되는 소리 및 소리 조합에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영어는 한국어와 달리 초성과 종성에 자음군(consonant cluster)을 허용하는데, 초성에는 “strong”/strɔ:ŋ/과 같이 3개의 자음까지 사용될 수 있고, 종성에는 “texts”/teksts/와 같이 4개의 자음까지 사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영어 음절의 범위를 C(자음)와 V(모음)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C)(C)(C)V(C)(C)(C)(C). 즉, 모음이 음절의 기본 요건이고, 초성 자음은 0~3개, 종성 자음은 0~4개로 나타난다(김진석 2003).

영어 단어 소리의 또 다른 특징은 다음절 단어에서 특정 음절이 강세를 가진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어 단어 소리와 구별되는 특징으로, 영어 단어 “radio”와 한국어 단어 “라디오”의 발음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인 영어 학습자는 다음절 단어의 강세 발음을 새로운 언어 패턴으로 학습할 필요가 있다(우상도 2017).

우리나라 영어과 교육과정은 한국어와 영어의 소리 차이에 주목하며, 초등영어교육에서 단어 소리 학습을 강조하여 왔다. 특히 2022 개정 초등 영어과 교육과정은 이전 교육과정보다 소리 학습(예: 소리와 철자의 관계)을 더욱 강조하는 모습을 보인다(윤여범 2023). 2022 개정 초등영어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와 성취기준에서 단어 소리 학습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표 1과 같다.

그러나 단어 소리 학습과 관련하여 지난 영어과 교육과정들은 여러 가지 제한점이 있었다. 우선 성취기준에서 제시하는 “따라 말하기” 활동이 자모음 소리에 따라 실현 가능성이 다를 수 있다(고경석 1998). 예를 들어, /ð/와 같이 한국어에 없는 소리의 경우, 원어민 발음을 들려주는 것만으로 어린이 영어 학습자들이 따라 말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그림 자료 등을 활용하여 발음 방식을 쉽게 설명해 주어야 한다.

또한 단어 소리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기본 어휘 목록”이 여러 가지 제한점을 보여왔다. 우선 다음절 단어가 부족하고 다음절 단어의 대부분이 첫 번째 음절에서 강세를 보여, 단어 강세 학습에 필요한 다양한 유형의 어휘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윤여범, 김용구 2012). 또한 모음 학습의 측면에서 철자와 소리 간의 규칙성을 설명하기 힘든 단어가 기본 어휘 목록에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양병선, 이미자 2017). 이는 지난 교육과정이 어휘 목록 구성 과정에서 단어 소리에 대한 명시적인 기준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기본 어휘 목록은 코퍼스, 친숙도, 사용범위, 빈도 등 이전

교육과정보다 더욱 과학적인 기준을 반영한 것은 사실이나, 소리 체계에 대한 명시적인 기준은 활용되지 못하였다(이문복, 신동광 2015).

표 1. 2022 개정 초등영어 교육과정에 제시된 단어 소리 관련 내용

구분	세부 구분	단어 소리 관련 내용
내용 체계	[이해/표현] 지식·이해	[3-4학년군] 쉽고 간단한 단어, 어구, 문장의 소리, 철자, 강세, 리듬, 억양 [5-6학년군] 간단한 단어, 어구, 문장의 강세, 리듬, 억양
	[이해] 과정·기능	[3-4학년군] 소리 식별하기; 강세, 리듬, 억양 식별하기 소리와 철자 관계 이해하며 소리 내어 읽기
		[5-6학년군] 강세, 리듬, 억양 식별하기 강세, 리듬, 억양에 맞게 소리 내어 읽기
	[표현] 과정·기능	[3-4학년군] 강세, 리듬, 억양에 맞게 따라 말하기 소리와 철자 관계 바탕으로 단어 쓰기
		[5-6학년군] 강세, 리듬, 억양에 맞게 말하기
	성취 기준	3-4 학년군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쉽고 간단한 단어, 어구, 문장을 강세, 리듬, 억양에 맞게 따라 말한다. 소리와 철자의 관계를 바탕으로 쉽고 간단한 단어를 쓴다. 		
5-6 학년군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단한 단어, 어구, 문장을 듣고 강세, 리듬, 억양을 식별한다. 간단한 단어, 어구, 문장을 강세, 리듬, 억양에 맞게 소리 내어 읽는다.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단한 단어, 어구, 문장을 강세, 리듬, 억양에 맞게 말한다. 실물, 그림, 동작 등을 보고 간단한 단어, 어구, 문장으로 말하거나 쓴다.

영어과 교육과정의 이러한 제약 사항은 교과서 개발과 영어 발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단어 소리 학습의 내용, 방법, 범위, 시기 등이 초등영어 교과서마다 상이하였고(문미정, 정현성 2019, 최희경, 박선호 2020), 초등영어를 배운 학습자들이 자주 접하지 못한 단어 소리를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김광 2001, 김진석 2003, 이정숙, 전병만, 김현기 1999, 한현숙 2001).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기본 어휘 목록의 개발 과정에도 단어 소리에 대한 명시적인 고려가 부재한 것으로 보인다(이현우 2023). 예를 들어, 기본 어휘의 3,000개 단어 군 중 800개를 초등학교에서 사용하기를 권장하는 기본 어휘로 분류할 때 사용된 기준은, 1) 참조 코퍼스의 단어 군 빈도 순위, 2) 초등학생에게 친숙한 주제나 소재, 3) 200개의 근원어(=2015 교육과정의 외래어) 중 초등학생에게 적합한 단어 군, 4) 기본 기수 및 서수와 계열명 단어 군, 5) 새로 추가된 단어 군 등으로, 단어 소리에 대한 명시적인 고려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본 어휘 목록에 제시된 초등영어 단어의 소리를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분포상의 특징과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교과서 개발과 교육과정 개정 등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기본 어휘 목록(교육부 2022, pp. 258-290)에 제시된 초등학교 권장 단어를 분석하였다. 기본 어휘 목록은 영어 성취기준 달성에 필요한 3,000개의 단어를 제시하며, 그중 하나의 별표(*)를 한 800개의 단어는 초등학교에서 사용하도록 권장된다. 본 연구는 이들 800개 단어를 “초등영어 단어”라고 칭한다. 참고로, 기본 어휘 목록에서 두 개의 별표(**)를 받은 1,200개의 단어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공통과목에 권장되고, 별표가 없는 1,000개의 단어는 그 외의 과목(예: 영어과 선택 과목)에 권장된다.

초등영어 단어는 우리나라 초등영어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우선 초등영어 교과서 개발의 주요 참고 자료로 활용되며, 이해 및 표현 내용을 구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 더불어, 초등영어 단어는 어린이 영어 학습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구체적인 의미를 표현하며(예: *cat*, *car*), 교수·학습에서의 활용도가 매우 높다. 또한 영어 의사소통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단어에 해당하여, 영어 학습 초기부터 습득하고 활용되는 언어 지식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초등영어 단어는 영어 발음 학습(예: phonics)에서 중요한 자료로서, 어린이 영어 학습자들은 단어 소리를 통해 영어의 발음 체계를 익힌다.

기본 어휘 목록에 제시된 초등영어 단어는 800개의 단어군을 대표한다. 예를 들어, “write”라는 초등영어 단어는 대표형뿐만 아니라 “writes, wrote, writing, writer” 등 다양한 변이형을 포괄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변이형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는 단어 소리 학습 활동이 주로 대표형을 중심으로 설계되며(예: *cat-car* vs. *cats-cars*), 모든 변이형을 분석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하며, 초등영어 교육과 관련도가 높은 변이형만을 따로 정의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표형(예: *write*)의 소리만을 분석하였다.

3.2 연구 절차 및 방법

본 연구의 주요 절차는 표 2와 같다. 우선 MS Excel Spreadsheet 2019 Version을 활용하여, 초등영어 단어와 그 소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초등영어 단어 800개의 소리는 Open Carnegie Mellon University Pronouncing Dictionary에 제시된 미국 영어 발음을 따라 국제 음성 기호(IPA: International Phonetic Alphabets)로 입력되었다. 예를 들어, 단어 “album”의 소리는 /ælbəm/으로 입력되었다. 기본 어휘 목록에서 하나의 단어군이 철자 표기 방식 등으로 인해 복수의 대표형을 제시하는 경우(예: *check** / *cheque**), 첫 번째 대표형만을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였다.

이후 분절음인 자음과 모음을 음절 구조에 따라 서로 다른 열에 분할 배치하였다. 예를 들어, /ælbəm/은 다섯 개의 분절음으로 나뉘어, /æ/는 음절 1의 중성(nucleus)으로, /l/는 음절 1의 종성(coda)으로, /b/는 음절 2의 초성(onset)으로, /ə/는 음절 2의 중성으로, /m/은 음절 2의 종성으로 분할되었다. 이는 /ælbəm/의 음절 간 경계를 /l/과 /b/ 사이로 설정한 것인데, 음절 경계 기준은 다음 절에서 상세하게 다루겠다.

표 2. 연구의 주요 절차

단계	절차	내용
1	데이터베이스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교 단어 800개의 단어와 소리를 입력 • 분절음(=자음, 모음)을 음절 구조로 분할
2	초분절 요소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절 개수 및 음절 구조(예: CVC, CCVC) 분석 • 강세 위치 분석
3	자음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성 분석: 단자음(예: /h/), 자음군(예: /fr/) • 종성 분석: 단자음(예: /ŋ/), 자음군(예: /nd/)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음절과 강세의 측면에서 초분절 요소를 분석하였다. 우선 각 단어의 음절 개수를 입력한 뒤(예: *car*=1음절, *album*=2음절), 각 음절의 구조를 초성과 종성의 자음 수, 즉 모음(V) 전후의 자음 수에 따라 분석하였다. 예를 들어, /kɑr/(=*car*)는 CVC 구조로, /klaʊd/(=*cloud*)는 CCVC 구조로, /æɪ.ləbm/(=*album*)은 VC 구조의 음절 1과 CVC 구조의 음절 2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강세 음절의 위치를 입력하였다(예: 음절 1 강세 단어=*car*, *album*; 음절 2 강세 단어=*believe*, *collect*). 이와 같은 자료로 음절과 강세 패턴의 빈도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음절 개수별 단어 유형 빈도와 강세 빈도 분포를 파악하고 음절의 순서-구조 조합별 빈도(예: 두 번째 음절의 구조가 CVCC인 단어 수)를 산출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자음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단어의 초성과 종성에 사용된 자음(군)을 분석하였다. 초성 분석은 음절의 초성이 아닌 단어의 초성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예를 들어, “discuss”와 같은 다음절 단어의 경우, 첫 번째 음절의 초성(=/d/)만을 분석하였다. 초성 분석에는 24개의 자음(예: /m/, /r/)과 59개의 자음군(예: /pl/, /st/)이 활용되었는데, 그 목록과 구분은 다음 절에서 제공한다. 종성 분석은 마찬가지로 음절의 종성이 아닌 단어의 종성만을 다루었다(예: /æɪləbm/의 /m/). 종성 분석에는 24개의 자음과 110개의 자음군(예: /nd/, /ks/)이 활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음절의 초성과 종성이 아닌 단어의 초성과 종성을 분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초등학교의 자음 학습 활동 대부분이 단어의 초성과 종성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음절 사이의 자음을 다룬 경우는 매우 드물다(최희경, 박선호 2020). 즉, 단어의 초성과 종성이 초등학교 소리 학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또한 음절 사이의 자음(군)은 음절 경계 설정에 따라 선행 음절의 종성이나 후행 음절의 초성으로 분류되는데, 동화 현상 등으로 인해 그 발음의 질적 양상이 일반적인 단어의 초성 및 종성과 차이를 보인다(Yavaş 2016). 이러한 차이는 중학교 영어의 내용 체계(교육부 2022)에 제시된 “연음이나 축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음절 사이의 자음(군)은 초등학교의 소리 학습 목표와는 관련이 적다고 할 수 있다.

자음 분석은 조음 방식(예: 파찰음)과 조음점(예: 양순음) 등의 음성적 특징과 개별 자음(군) 단위로 실시되었으며, 유형 빈도와 구현 빈도의 분포를 진단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예를 들어, 단자음 초성의 빈도 분포를 양순음, 치경음 등 조음점을 기준으로 파악한 뒤 빈도 비율의 양상에 따라 고효율과 저효율에 대한 추가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 다른 예로, 자음군의 구성 분류(예: 파열음+접근음)와 실제 소리 조합(예: /kl/) 등을 기준으로 유형 및 구현 빈도를 산출한 뒤, 초등학교 학습에서의 유의미한 양상을 중심으로 사례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초등학교 단어의 자음 분포를 파악하고, 자음 학습의 측면에서 보완 방안을 탐색하였다.

3.3 분석 기준

본 연구는 다음절 단어의 음절 경계 설정에 최대 초성 원리(maximal onset principle: cf. Titone and Connine 1997)를 적용하였다. 이는 음절 경계 설정에서 가장 널리 통용되는 기준으로, 모음과 모음 사이에 있는 자음을 최대한 후행 음절의 초성으로 배정한다. 예를 들어, “across”/əkrɒs/의 경우 두 모음 사이에 있는 두 개의 자음을 모두 후행 모음의 초성으로 배정하여, 자음 /k/에서부터 두 번째 음절이 시작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그 경계를 점으로 표시한다(=/ə.krɒs/). 그러나 최대 초성 원리의 적용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 가장 적은 수의 자음을 선행 모음의 종성으로 배정하여 음절 경계를 설정한다.

- 영어에 존재하지 않는 초성 패턴(예: /rk/)을 보이는 경우: /hɑ.rkət/ → /hɑr.kət/
- 선행 음절이 비약화 단모음(=/ɪ, ɛ, æ, ʌ, ʊ/)으로 끝나는 경우: /plæ.stk/ → /plæs.tk/
- 합성어의 어간 경계와 음절 경계가 다른 경우: “soft.ware” vs. /sɒf.twɛr/ → /sɒft.wɛr/

반면, 초성 및 종성 분석에 사용된 24개의 영어 자음은 조음점(point of articulation), 조음 방식(manner of articulation), 유성성(voicing)의 기준으로 표 3과 같이 분류된다. 이 중, 유성성 기준의 분류는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에 적용되며, 비음과 접근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조음점 분류에서 후치경음과 경구개음을 하나의 범주로 모으는 경우도 있으나, 본 연구는 두 소리의 음성적 차이에 주목하여 별도의 범주로 구분한다.

표 3. 단자음 분류

조음 방식	유성성	조음점						
		양순음	치음	치경음	후치경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성문음
파열음/파찰음	무성음	p		t	<u>t̪</u>		k	
	유성음	b		d	<u>d̪</u>		g	
마찰음	무성음	f	θ	s	ʃ			h
	유성음	v	ð	z	ʒ			
비음		m		n			ŋ	
접근음				l	r	j	w	

* 관련 영문 용어: 조음 방식(plosive, affricate, fricative, nasal, approximant), 조음점(labial, dental, alveolar, post-alveolar, palatal, velar, glottal)

자음군 분석은 구성 자음들의 조음 방식을 기준으로 분류되었다(표 4 참고). 초성 분석에는 총 59개의 자음군이 고려되었고, 이는 조음 방식 구성에 따라 다섯 범주로 분류되었다: 1) 자음 + /j/, 2) 파열음+ 접근음(/j/ 제외), 3) 마찰음+ 접근음(/j/ 제외), 4) /s/ + 파열음/마찰음/비음, 5) /s/ + 파열음/마찰음/비음 + 접근음. 구체적인 분류 절차와 기준은 아래와 같다.

우선 공명도 연쇄 원리(Sonority Sequencing Principle: SSP)를 준수하는 이중 자음을 분석하였다(Selkirk 1984). 즉, 자음 중 공명도가 높은 접근음이 모음 가까이에 사용된 패턴을

3개의 범주로 구분하였다. 그 첫 번째 범주는 접근음 /j/ 앞에 다양한 유형의 자음이 등장되는 자음군이고, 다른 두 범주는 첫 번째 자음을 조음 방식에 따라 파열음과 마찰음으로 구분하고 두 번째 자음에 /j/를 제외한 접근음(= /l/, /r/, /w/)이 사용된 자음군으로 설정하였다. 이후 SSP를 적용하기 어려운 /s/로 시작하는 자음군을 그 길이에 따라 이중 자음과 삼중 자음의 두 범주로 구분하고 조음 구성을 포괄적으로 기술하였다.

표 4. 자음군 분류

위치	조음 구성	유형	자음군 조합
	자음 + /j/	15	pj, bj, tj, dj, kj, gj , mj, nj, fj, vj, θj, sj, zj, hj, lj
	파열음+ 접근음(/j/ 제외)	15	pl, bl, kl, gl , pr, br, tr, dr, kr, gr , tw, dw, gw , kw, pw
초성	마찰음+ 접근음(/j/ 제외)	11	fl, sl, θl, fl , fr, θr, fr , hw, sw, θw, vw
	/s/ + 파열/마찰/비음	7	sp, st, sk, sm, sn, sf, sθ
	/s/ + 파열/마찰/비음 + 접근음	11	spl, skl, spr, str, skr, skw, spj, stj, skj, smj, sfr
	접근음 + 장애음(1~3개)	43	lb, ld, lð, lɸ , lf, lk, lp, ls, lf lt, lf , lv, lz, lθ, rb, rd, rð, rɸ , rf, rg, rk, rp, rs, rf rt, rf , rv, rz, rθ, lfθ, lks, lkt, lps, lpt, lst, lts, lvð, lvfθ, rkt, rps, rpt, rst, rts
	접근음 + 공명음 (+/d/ or /θ/)	10	rl, lm, ln, rm, rn, lmd, rld, rmd, rmθ, rnd,
중성	비음 + 장애음(1~3개)	29	mf, mp, mz, mθ, nd, nɸ , nf, ns, nt, nf , nz, nθ, ɲð, ɲg, ɲk, ɲθ, md, mps, mpt, mt, ndð, ndðz, nts, ntθ, ɲd, ɲks, ɲkt, ɲkθ, nst
	파열음 + 장애음(1~3개)	16	dz, dθ, ks, kts, ps, pts, pθ, ts, tθ, kt, pt, kst, ksts, ksθ, ksθs, ksθt
	마찰음 + 장애음(1~2개)	12	ðd, ft, sk, sp, st, fl , zd, θt, ðz, fθ, fθs, θs

* 자음군 유형 표시에서 // 모양의 괄호를 생략함

중성 분석에는 110개의 자음군이 고려되었고, 조음 방식 구성에 따라 다섯 범주로 분류되었다: 1) 접근음 + 장애음(obstruent: 1~3개), 2) 접근음 + 공명음(sonorant) (+/d/ or /θ/), 3) 비음 + 장애음(1~3개), 4) 파열음 + 장애음(1~3개), 5) 마찰음 + 장애음(1~2개). 세부 분류 절차와 기준은 아래와 같다.

우선 SSP를 참고하여 공명음으로 시작하는 자음군을 분석한 결과, 공명음에 속하는 접근음과 비음 중 접근음만이 다른 공명음을 선행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접근음 또는 비음으로 시작하는 3개의 중성 자음군 범주를 설정하였다. 나머지 중성 자음군은 모두 장애음으로만 구성되어 있었는데, 첫 번째 자음이 파열음이나 마찰음 중 하나로 시작하는 모습을 보였기에, 이를 2개의 중성 자음군 범주로 설정하였다.

참고로 표 4는 일부 자음군 패턴을 포함하고 있지 않을 수 있으나, 모든 초등영어 단어의 초성과 중성의 자음군을 설명할 수 있었다.

4. 연구 결과 및 논의

4.1 초분절 요소: 음절 및 강세 패턴

초등영어 단어 800개의 음절 개수와 강세 위치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우선 대다수의 단어들이 하나의 음절로 구성되어 있었고(506개: 63.3%), 두 개의 음절로 구성된 단어가 약 29%(233개)를 차지하고 있었다. 3개 이상의 음절을 가진 단어는 61개였다. 영어를 처음 배우는 초등학생들이 학습하기 쉬운 단음절의 영어 단어(예: *car*, *cat*)가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결과는 초등영어에 바람직한 분포로 볼 수 있다.

표 5. 음절 개수 및 강세 위치별 초등 단어의 유형 빈도

음절 개수	강세 위치			합계	비율
	음절 1	음절 2	음절 3		
1	506			506	63.3%
2	187	46		233	29.1%
3	35	17	4	56	7.9%
4	2	1	2	5	0.6%
합계	730	64	6	800	100%

그러나 단음절 단어에 과잉 의존할 경우, 초등영어 학습자들이 단어 강세를 익힐 기회가 부족할 수 있다. 즉, 영어 이해와 표현 과정에서 단어의 강세 음절과 비강세 음절을 구분하는 경험이 부족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절 단어를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으나, 강세 위치의 측면에서 또 다른 제한점이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294개의 다음절 단어 중 224개(=76.2%)가 첫 번째 음절에서 강세를 보이므로, 초등영어 학습자들이 첫 번째 음절 강세 패턴을 과잉 일반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예를 들어, 두 번째 음절에서 강세를 보이는 동사(예: *discuss*, *believe*)를 이해하고 표현할 때, 잘못된 강세 지식으로 의사소통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더불어 본 연구는 각 음절의 구조를 초성과 종성의 자음 수로 분석하였다. 예를 들어, CCVC는 초성에 2개의 자음이, 종성에 1개의 자음이 사용된 음절이다. 자음 수에 따른 영어 음절 구조는 총 20유형으로(=[0~3개의 초성]*[0~4개의 종성]=4*5), 그중 11개의 유형이 1,160개의 음절에서 사용되었으며, 대부분의 음절 구조가 초등영어 수준에 적합한 간단한 패턴을 보였다(표 6 참고). 참고로 초등영어 단어에서 사용되지 않은 9개 유형의 음절 구조는 CCVCCC, CCCVCC와 같이 복잡하였다.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 음절 구조는 CVC 패턴으로, 전체 음절의 44.5%(516개)에 해당하였다. 두 번째와 세 번째로 많이 사용된 음절 구조도 모음 전후로 하나의 자음이 결합하는 형태였다. 이 세 유형의 음절 구조(CVC, CV, VC)가 전체 음절의 약 70%를 차지하였다. 이처럼 초등영어

학습자들이 쉽게 익힐 수 있는 간단한 음절 구조가 빈번하게 활용되는 것은 학습 난이도의 측면에서 적절한 분포로 보인다.

표 6. 초성 및 종성의 자음 수에 따른 초등영어 단어의 음절 구조 분포

순위	음절 구조	단어 예시	음절 1	음절 2	음절 3	음절 4	합계	비율
1	CVC	<i>back</i>	384	105	24	3	516	44.5%
2	CV	<i>toy</i>	100	51	14		165	14.2%
3	VC	<i>up</i>	59	65	7	1	132	11.4%
4	CVCC	<i>want</i>	85	13	4		102	8.8%
5	CCVC	<i>stop</i>	80	14			94	8.1%
6	V	<i>I</i>	29	35	10		74	6.4%
7	CCV	<i>blue</i>	30	3	1		34	2.9%
8	VCC	<i>ask</i>	11	7		1	19	1.6%
9	CCVCC	<i>print</i>	13		1		14	1.2%
10	CVCCC	<i>next</i>	6	1			7	0.6%
11	CCCVC	<i>strong</i>	3				3	0.3%
합계			800	294	61	5	1,160	100%

그러나 모음 전후로 하나의 자음이 결합하는 음절 구조는 한국어 음절 구조(예: *간, 가, 안*)와 유사하기에, 영어의 차별적인 음절 구조를 익히는 데 활용되기 어렵다. 즉, 최고빈도의 세 음절 구조(CVC, CV, VC)만으로는 초성과 종성에 자음군을 가지는 영어의 음절 구조를 익힐 수 없다. 다행히, 네 번째와 다섯 번째로 많이 사용된 두 유형의 음절 구조(CVCC, CCVC)가 자음군을 종성 또는 초성에서 활용하고 있기에, 이를 활용한 영어 음절 학습 활동이 초등영어 학습자들에게 제공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2 단어의 초성

초등영어 단어 800개의 초성(onset)에 사용된 자음을 분석한 결과, 우선 초성이 없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예: *act, okay*)가 99개 있었다. 나머지 701개의 단어 중 단자음 초성을 가진 단어(예: *ball, zoo*)는 575개였고, 자음군 초성을 가진 단어(예: *black, try*)는 126개였다.

4.2.1 단자음 초성

단자음 초성으로 시작하는 575개의 초등영어 단어를 초성의 조음점과 조음 방식을 기준으로 분류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우선 조음점에서는 양순음과 치경음, 연구개음이 약 80%를 차지하며 다양한 단어의 첫소리로 사용되었다. 다른 조음점 유형들은 모두 10% 미만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특히 치음과 경구개음의 비율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초등영어 학습자들이 치음과 경구개음으로 시작하는 단어의 소리를 배울 기회가 부족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표 7. 단자음 초성의 조음점과 조음 방식 분포(N=575)

조음점	빈도	비율	조음 방식	빈도	비율
양순음	171	29.7%	파열음	226	39.3%
치경음	169	29.4%	마찰음	162	28.2%
연구개음	118	20.5%	접근음	107	18.6%
후치경음	55	9.6%	비음	61	10.6%
성문음	42	7.3%	파찰음	19	3.3%
치음	13	2.3%			
경구개음	7	1.2%			

다음으로 조음 방식에서는 파열음, 마찰음, 접근음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세 유형의 자음이 단자음 초성의 초등영어 단어에서 86.1%를 차지하였다. 반면, 파찰음은 19개의 단어에서만 단자음 초성으로 사용되었으며, 그 비율은 3.3%에 그친다. 따라서 초등영어 학습자는 파찰음으로 시작하는 단어의 소리를 배우기 어려울 수 있다.

다섯 유형의 조음 방식 중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의 세 유형(총 407개 단어)은 유성성을 기준으로 무성음과 유성음으로 구분된다. 빈도 분석 결과, 무성음을 초성으로 사용하는 초등영어 단어가 유성음을 사용하는 단어보다 2배 이상 많았다(283 vs. 124). 이와 관련하여, 조음점과 조음 방식이 동일한 무성음-유성음 쌍을 단어 개수의 측면에서 비교해 보니, /f/-/v/는 42개와 6개로, /s/-/z/는 47개와 1개로 큰 차이를 보였다.

조음 기준 단위 분석 이후, 24개의 자음 소리를 기준으로 단어 빈도를 분석하였다. 표 8에 제시된 분석 결과에 따르면, /b/와 /k/가 가장 많은 단어(예: *book, cat*)에서 초성으로 사용되었다. 반면 /ŋ/과 /ʒ/는 한 빈도 초성으로 사용되지 않았는데, 이는 자연스러운 결과에 해당한다. 우선 /ŋ/은 영어에서 종성으로만 사용되는 자음이고, /ʒ/는 주로 불어에서 파생된 상위 수준의 영어 단어(예: *genre, gendarme*)에서 초성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표 8. 개별 단자음 초성의 분포

자음	빈도	비율	자음	빈도	비율	자음	빈도	비율
/b/	59	10.3%	/l/	30	5.2%	/tʃ/	8	1.4%
/k/	57	9.9%	/p/	29	5.0%	/j/	7	1.2%
/s/	47	8.2%	/d/	28	4.9%	/θ/	7	1.2%
/w/	45	7.8%	/n/	26	4.5%	/ð/	6	1.0%
/f/	42	7.3%	/r/	25	4.3%	/v/	6	1.0%
/h/	42	7.3%	/g/	16	2.8%	/z/	1	0.2%
/t/	37	6.4%	/ʃ/	11	1.9%	/ŋ/	0	0.0%
/m/	35	6.1%	/ʒ/	11	1.9%	/ʒ/	0	0.0%

그러나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이 일반적으로 어려움을 보이는 단자음 초성인 /ʃ/, /ʒ/, /tʃ/, /j/, /θ/, /ð/, /v/, /z/ 등의 개별 비율은 2% 미만에 그치고 있었다. 즉, 초등영어 단어만으로는 이러한

단자음 초성을 충분히 익히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shark, China, January, three, van, zero” 등 초등학생들이 익숙한 단어를 추가로 활용할 수 있다.

4.2.2 자음군 초성

자음군 초성으로 시작하는 126개의 초등영어 단어를 다섯 범주의 조음 구성과 59개의 자음군 유형으로 분석하였다. 단어 개수를 기준으로 조음 구성과 자음군 유형을 분류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우선 가장 많은 수의 초등영어 단어에서 사용된 자음군 조음 구성은 “과열음+접근음(/j/ 제외)”으로 15개의 유형 중 12개의 유형이 77개의 단어에서 사용되었다. 그중, 가장 많은 단어에서 사용된 자음군 유형은 /kl/과 /br/이고, “cloud”와 “brown” 등 각각 10개 단어의 초성으로 사용되었다.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된 조음 구성인 “/s/ + 과열음/마찰음/비음”은 7개의 유형 중 5개의 유형이 29개 단어의 초성에서 사용되었으며, 가장 많이 사용된 유형인 /st/는 “star, stone” 등 12개의 단어에서 쓰였다.

이처럼 초등영어 단어의 초성에서 활용도가 높은 자음군 조음 구성과 유형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초등영어 학습자들이 초성 자음군이라는 영어의 특징을 인지하고 고빈도 자음군을 중심으로 자음군 초성을 학습할 수 있을 것이다.

표 9. 자음군 초성의 조음 방식 및 자음 조합별 분포

조음 구성	전체 유형	유형 빈도	구현 빈도	*자음군 유형(단어 개수)
과열음+접근음(/j/ 제외)	15	12	77	kl(10), br(10), gr(9), tr(8), dr(8), pr(7), tw(6), pl(5), kw(5), kr(4), bl(3), gl(2)
/s/ + 과열음/마찰음/비음	7	5	29	st(12), sk(7), sp(6), sm(3), sn(1)
마찰음+접근음(/j/ 제외)	11	5	13	fr(6), fl(3), sl(2), θr(1), sw(1)
/s/ + 과열음/마찰음/비음 + 접근음	11	2	3	str(2), spr(1)
자음 + /j/	15	4	4	bj(1), fj(1), hj(1), mj(1)
합계	59	28	126	

* 자음군 유형 표시에서 // 모양의 괄호를 생략함

그러나 나머지 세 범주의 조음 구성은 전체 유형의 절반 미만만이 단어의 초성으로 쓰였다. 예를 들어, “자음 + /j/”의 자음군 구성 범주는 총 15개의 유형을 가지지만 그중 4개만이 1번씩 초등영어 단어의 초성으로 활용되었다(=beauty, future, human, music). 따라서 초등영어 학습자들이 이러한 자음군 유형을 효과적으로 익히기 위해서는 초등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추가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예: cute).

4.3 단어의 종성

초등영어 단어 800개의 종성에 사용된 자음을 분석하였다. 우선 종성 자음 없이 모음으로 끝나는 단어(예: *too, happy*)가 142개 있었다. 나머지 658개의 단어 중 단자음 종성을 가진 단어(예: *ball, service*)는 524개였고, 자음군 종성을 가진 단어(예: *hand, forest*)는 134개였다.

4.3.1 단자음 종성

단자음 종성으로 끝나는 524개의 초등영어 단어를 조음점과 조음 방식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표 10과 같다.

표 10. 단자음 종성의 조음점과 조음 방식 분포(N=524)

조음점	빈도	비율	조음 방식	빈도	비율
치경음	282	53.8%	파열음	169	32.3%
후치경음	102	19.5%	접근음	136	26.0%
양순음	70	13.4%	비음	118	22.5%
연구개음	63	12.0%	마찰음	88	16.8%
치음	7	1.3%	파찰음	13	2.5%
성문음	0	0.0%			
경구개음	0	0.0%			

우선 조음점에서는 치경음(예: /t/)의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나머지 단어의 대부분은 후치경음(예: /r/)과 양순음(예: /p/), 그리고 연구개음(예: /k/)이 종성에 사용되었다. 그리고 영어에서는 성문음과 경구개음이 초성에서만 사용된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종성 빈도=0).

반면, 종성에 치음이 사용된 초등영어 단어가 7개(=1.3%)에 그치고 있어, 초등영어 학습자들이 해당 종성 소리를 학습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breathe, fourth, math, youth” 등 초등영어 수준의 단어 변이형이나 기본 어휘 목록의 상위 수준 단어를 활용하여 치음으로 끝나는 다양한 단어 예시를 제시할 수 있다.

다음으로 조음 방식의 경우, 파열음이 가장 많은 169개의 단어(32.3%)에 사용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초성 파열음과 종성 파열음의 음성적 차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초성 파열음은 유기 파열음(aspirated stop)으로 발음되는 반면, 종성 파열음은 무기 파열음(unaspirated stop)으로 발음되는 경향이 있다. 즉, 초성에서는 막혔던 공기를 터뜨리며 순식간에 배출하는 유기 파열음으로 사용되고 종성에서는 막혔던 공기를 배출하지 않는 무기 파열음으로 사용되는데, 많은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이 무기 파열음을 식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윤영도, 이나래 2012).

따라서 초등영어 학습자들이 많은 단어에서 사용되는 종성 파열음을 학습할 때, 무기 파열음의 특징을 정확하게 익힐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직전 모음의 길이 차이(예: *cat* vs. *cad*)와

입과 혀의 모양 등 종성에 대한 시각적 정보(예: *pap-pat-pack*)를 활용할 수 있다. 반면, 파찰음을 종성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13개(2.5%)에 그치고 있어, 초등영어 학습자들이 해당 소리를 익히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섯 유형의 조음 방식 중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의 세 유형(합계: 270개 단어)을 유성성을 기준으로 추가 분류한 결과, 초성에서와 마찬가지로 무성음 종성을 사용하는 초등영어 단어가 유성음을 사용하는 단어보다 2배 이상 많았다(198 vs. 72).

조음 기준 단위 분석 이후, 개별 자음 소리를 분석하였다. 표 11에 따르면, /r/와 /n/이 가장 많은 단어(예: *car, pen*)에서 사용되었다. 반면, /f/, /ʃ/, /ʒ/, /g/, /θ/, /ɰ/, /b/, /ð/ 등의 개별 비율은 2% 미만으로, 이러한 단자음 종성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조음점과 조음 방식이 동일한 소리의 쌍에서 두드러진 빈도 차이를 확인하였는데, /k/는 38개의 초등영어 단어에서 종성으로 사용되지만 /g/는 7개의 단어에서만 종성으로 사용되었으며, 종성 /p/와 /b/의 빈도 차이도 21개와 2개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분포 차이는 초등영어 교육에서 활용도가 높은 최소 대립어로 종성 발음을 지도할 때(최희경, 박선호 2020), 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표 11. 개별 단자음 종성의 분포

자음	빈도	비율	자음	빈도	비율	자음	빈도	비율
/r/	81	15.5%	/p/	21	4.0%	/θ/	6	1.1%
/n/	75	14.3%	/ŋ/	18	3.4%	/ɰ/	5	1.0%
/t/	70	13.4%	/z/	13	2.5%	/b/	2	0.4%
/l/	55	10.5%	/v/	13	2.5%	/ð/	1	0.2%
/s/	38	7.3%	/f/	9	1.7%	/w/	0	0.0%
/k/	38	7.3%	/ʃ/	8	1.5%	/ʒ/	0	0.0%
/d/	31	5.9%	/ʒ/	8	1.5%	/j/	0	0.0%
/m/	25	4.8%	/g/	7	1.3%	/h/	0	0.0%

4.3.2 자음군 종성

자음군 종성으로 끝나는 134개의 초등영어 단어를 다섯 범주의 조음 구성과 110개의 자음군 유형으로 분석하였다(표 13 참고). 분석 결과, 다섯 범주의 조음 구성이 모두 활용되었으나, 총 110개 자음군 유형 중 36개(32.7%)만이 사용되었다. 이는 예측되는 결과로서, 많은 종성 자음군이 복수형(*tests: /sts/*)과 동사 굴절형(*helps: /lps/*)과 같은 변이형에 자주 사용되는데, 본 연구는 대표형(예: *text, help*)의 소리만을 분석하였기 때문이다.

가장 많은 수의 초등영어 단어에서 종성으로 사용된 자음군 조음 구성은 “비음 + 장애음(1~3개)”으로, 29개의 유형 중 10개의 유형이 50개의 단어에서 사용되었다. 그 중, 가장 많은 단어에서 사용된 자음군 종성은 /nd/과 /nt/이고, “hand”와 “paint” 등 각각 20개와 13개 단어의 종성으로 사용되었다.

표 12. 자음군 초성의 조음 방식 및 자음 조합별 분포

조음 구성	전체 유형	유형 빈도	구현 빈도	*자음군 유형(단어 개수)
비음 + 장애음(1~3개)	29	10	50	nd(20), nt(13), ŋk(5), ns(4), mp(2), nθ(2), nʃ(1), nθ(1), nst(1), nts(1)
접근음 + 장애음(1~3개)	43	14	45	rt(9), ld(7), rd(6), rk(5), lt(4), rθ(3), rs(3), rst(2), lp(1), lk(1), rʃ(1), rθ(1), lv(1), rz(1)
마찰음 + 장애음(1~3개)	12	4	18	st(13), ft(2), sk(2), ðz(1)
접근음 + 공명음 (+/d/, /θ/)	10	5	11	rm(4), rn(4), lm(1), rl(1), rld(1)
파열음 + 장애음(들)	16	3	10	ks(5), kt(4), kst(1)
합계	110	36	134	

* 자음군 유형 표시에서 // 모양의 괄호를 생략함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된 조음 구성인 “접근음 + 장애음(1~3개)”은 43개의 유형 중 14개의 유형이 45개 단어의 초성에서 사용되었다. 구체적으로, /l/로 시작하는 자음군 5유형이 14개 단어의 종성에 해당하고, /r/로 시작하는 자음군 9유형이 31개 단어의 종성에 해당한다. 그중 가장 많은 단어의 종성에서 사용된 유형은 /rt/로 “shirt”, “art” 등 9개의 단어에서 쓰였다.

반면, “접근음 + 공명음 (+/d/, /θ/)”과 “파열음 + 장애음(1~3개)”은 10개 내외의 단어에서만 사용되었는데, 초등영어 단어의 변이형(*filmed*, *cats*)이나 상위 수준의 단어(*alarm*, *accept*)를 활용함으로써 보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영어 단어 종성에서 활용도가 높은 자음군 조음 구성과 유형을 다양하게 활용함으로써, 초등영어 학습자들은 한국어와 영어의 차이점을 인식하고 영어의 자음군 종성을 듣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2022년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초등영어 단어 800개의 소리를 탐구하였다. 크게 초분절 요소인 음절 구조와 강세 패턴을, 분절 요소인 단어의 초성과 종성을 분석하였다. 전반적인 분석 결과에 따르면, 초등영어 단어들은 다양한 음절 및 강세 패턴, 초성 및 종성 자음(군)을 비교적 반복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단일 음절 단어와 다음절 단어가 모두 포함되어 있고, 자음군을 초성과 종성에 사용한 음절도 다수 관찰되었다. 또한 거의 모든 유형의 단자음과 단모음이 단어의 초성과 종성에 사용되었으며, 특히 모든 조음 방식 조합의 자음군이 관찰되었다. 이는 초등학교에서 단어의 소리 학습을 강조하는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교육부 2022)의 지침과 부합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단어 소리 학습과 관련된 구체적인 분포 양상에서 기본 어휘 목록의 한계점이 발견되어 보완 방안이 논의되었다. 첫째, 초등영어 단어는 다음절 단어의 비율이 높고 다음절 단어도 4분의

3 이상이 첫 번째 음절에서 강세를 가지고 있었다. 이와 같은 음절-강세 분포는 이전 교육과정에서도 발견되었던 한계점으로(윤여범, 김용구 2012), 새 교육과정에서도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 영어 학습자에게 다음절 단어의 강세 구분이 새로운 언어 패턴이라는 점에서(우상도 2017), 기본 어휘 목록만으로는 다양한 강세 패턴을 익히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초등영어 학습자의 과잉일반화를 경계하며, 다양한 유형의 다음절 단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주요 강세 패턴(예: 마지막 음절에 강세를 가지는 다음절 단어)을 명시적으로 대조하며 지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단어의 초성에서 치음, 경구개음, 파찰음 등이 상대적으로 드물게 사용되고 있었고, 유무성음 자음쌍 중 유성음이 드물게 사용되는 현상이 있었다. 초등영어에서 단어의 초성이 파닉스 활동에서 핵심적인 내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문미정, 정현성 2019, 최희경, 박선호 2020), 초등영어 단어 초성의 고르지 못한 분포는 단어 소리 학습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또한 단어의 초성에서 “자음+ /j/”와 같은 자음군 구성이 드물게 사용되고 있어 그에 대한 교육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셋째, 단어의 종성에서는 파열음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어 무기 파열음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요구된다. 더불어 치음이나 특정 자음군 구성의 사례가 적으므로, 초등영어 단어의 변이형과 일부 상위 수준 단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영어교육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교육과정 기본 어휘 목록의 개발 기준과 과정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과 그 이전 교육과정에서 기본 어휘 목록은 주로 빈도 순위와 친숙도 등의 기준을 중심으로 개발되었다. 그러나 교육과정 내용 체계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초등)영어 학습자들이 단어를 통해 영어의 소리 체계를 학습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본 어휘 목록을 개발하고 초등학교 수준의 단어를 선정할 때 영어 소리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나아가 어휘 지식은 발음 영역뿐만 아니라 문법, 문화, 성숙도(초등영어 기본 어휘에서 추출한 예시=*against, might, church, god, cash, wine*) 등 여러 영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기본 어휘 목록의 개발과 분류 과정은 언어 지식 전반에 대한 포괄적이면서도 체계적인 이해에 바탕을 두어야 할 것이다.

둘째, 초등영어 교과서를 개발할 때, 본 연구에 제시된 다양한 소리 체계를 반영하고, 학습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한국어-영어 차이로 인해 따라 한국인 영어 학습자에게 어려운 발음(예: /v/, /z/)이 단어 목록에서 충분히 제시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점을 변이형 등의 사례와 그림 자료 등을 활용한 쉽고 간단한 설명 등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초등영어 교사들은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가지는 영어 단어 소리의 분포적 특징과 한계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초등영어 학습자들의 소리 지식 발달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어쩌면 평생 영어 학습자로 살아갈 아이들에게 필요한 포괄적인 영어 소리 활용 능력을 초등학교 영어 수업을 통해 길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이다.

한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모음을 분석하지 않았는데, 한국어와 영어는 모음의 특징과 분포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자음과 모음을 함께 분석하여 분절음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기본 어휘 목록의 초등영어 단어를 소리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는데, 앞서 논의한 것과 같이

문법, 문화, 성숙도 등 다양한 어휘 관련 영역을 종합적으로 탐구하며 기본 어휘 목록 개발의 개선 방향을 폭넓게 제시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밝힌 초등영어 단어의 소리 분포 양상 중 일부가 영어의 일반적 특징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즉, 기본 어휘 목록이 영어의 일반적 특징을 반영한 결과로 특정한 소리 분포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는 추측인데, 후속 연구에서는 영어의 소리 분포에 대한 대표성 있는 자료를 함께 분석하여 교육학적 개입이 필요한 지점을 보다 명확히 진단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영어 교육과정의 기본 어휘 목록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영어 학습자들의 단어 소리 학습을 근본적인 차원에서 진단하고, 교육과정 개선과 학습 효율화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와 후속 연구의 결과가 영어 단어 소리 학습을 개선하는 데 활용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 고경석(Ko, K.). 1998. 초등영어교육에 있어서의 효율적인 발음지도(Pronunciation teaching in elementary school English). 《교육논총》(*The Journal of Education*) 15, 313-345.
-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2022. 『영어과 교육과정』(*Curriculum for English Language Education*). 세종: 교육부(Sejong: Ministry of Education).
- 김 광(Kim, K.). 2001. 초등학생 영어 자음군 발음상의 모음삽입과 자음탈락 오류분석(*Epenthesis and deletion in the interlanguage of Korean elementary school children*). 석사학위논문(Master's thesis), 인천대학교(Incheon National University).
- 김진석(Kim, J.). 2003. 오류분석을 통한 영어 자음군 발음 지도 방법(A study on the pronunciation of English consonant clusters based on error analysis). 《교육과정평가연구》(*The Journal of Curriculum and Evaluation*) 6(1), 293-312.
- 문미정, 정현성(Mun, M. and H. Chung). 2019.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 3~4학년 영어 교과서 파닉스 분석(An analysis of phonics in third and fourth grade elementary school English textbooks based on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of English). 《교사교육연구》(*Teacher Education Research*) 58(4), 471-482.
- 양병선, 이미자(Yang, B. and M. Lee). 2017. 「2015 개정교육과정」 초등영어 기본어휘 분석 및 제안: 1음절어 모음자를 중심으로(An analysis of and suggestion for elementary school English vocabularies for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Focusing on one syllable words' vowel letters). 《언어과학》(*Journal of Language Sciences*) 24(2), 101-125.
- 우상도(Woo, S.). 2017. ELF 환경에서 한국인 학습자를 위한 영어발음 핵심영역(English pronunciation cores for Korean learners in the ELF context). 《교육논총》(*The Journal of Education*) 54(1), 1-14.
- 윤여범(Yoon, Y.). 2023.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른 초등영어 교과서의 파닉스 비교·분석(Analysis of phonics in primary English textbooks in line with changes to the national curriculum). 《영어영문학》(*The Mirae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28(1), 123-146.

- 윤여범, 김용구(Yoon, Y. and Y. Kim). 2012.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영어 발음 교육 자료 개발(Developing material for teaching primary English pronunciation based on the 2009 national curriculum). 《한국초등교육》(*The Journal of Korea Elementary Education*) 23(3), 49-67.
- 윤영도, 이나래(Yun, Y. and N. Lee). 2012. 한국인들의 영어무기과열음 발음교정 효과에 대한 연구(Research on the effect of pronunciation training of English unaspirated stops for Koreans). 《언어와 언어학》(*Language and Linguistics*) 57, 141-158.
- 이문복, 신동광(Lee, M. and D. Shin). 2015. 2015 영어과 교육과정 기본 어휘 목록 개발(Development of the Korean basic English word list of the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of English). 《영어교과교육》(*Journal of the Korea English Education Society*) 14(4), 115-134.
- 이정숙, 전병만, 김현기(Lee, J., B. Jeon and H. Kim). 1999. 신형 Visi-Pitch 2를 사용한 고등학생 강세 오류의 시각적 비교 연구(Comparative studies of English stress errors by Korean high school learners using Visi-Pitch). 《글로벌영어교육학회》(*Studies in English Education*) 4(2), 5-22.
- 이현우(Lee, H.). 2023.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기본 어휘 목록: 개발과 적용(The basic vocabulary list of the 2022 revised national curriculum of English: Development and application). 《영어학》(*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23, 59-88.
- 최희경, 박선호(Choi, H. and S. Park). 2020. 2015 개정 교육과정 기반 초등영어 교과서의 파닉스 내용과 지도 방법 분석(An analysis of phonics activities from elementary English textbooks based on the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초등영어교육》(*Primary English Education*) 26(3), 55-79.
- 한현숙(Han, H.). 2001. 초등 영어 자음군 발음 지도(*Teaching the pronunciation of consonant clusters in elementary school English*). 석사학위논문(Master's thesis), 서울교육대학교(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O'Brien, M. G. 2004. Pronunciation matters. *Die Unterrichtspraxis* 37(1), 1-9.
- Pennington, M. C. and J. Richards. 1986. Pronunciation revisited. *TESOL Quarterly* 20(2), 207-225.
- Selkirk, E. 1984. On the major class features and syllable theory. In M. Aronoff and R. Oehrle. eds., *Language Sound Structure: Studies in Phonology*, 107-136. Cambridge: MIT Press.
- Titone, D. and C. Connine. 1997. Syllabification strategies in spoken word processing: Evidence from phonological priming. *Psychological Research* 60, 251-263.
- Yavaş, M. 2016. *Applied English Phonology* (3rd ed.). Oxford: Wiley-Blackwell.

Examples in: English

Applicable Languages: English

Applicable Level: Elementary